

조동성

(2019년 4월 28일 작성)

현재에서 미래로

조동성은 국립 인천대학교 제15대 총장이다. 인천대는 서울대학교와 함께 국내 2개밖에 없는 법인국립대학 2곳 중 하나이다. 조 총장이 인천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혁신 프로그램은 연구 분야에서 '초점이 있는 연구중심대학 (Focused Research University: FRU)', 교육 분야에서 '매트릭스 칼리지 (Matrix College)', 사회공헌 분야에서 '트라이버시티 (Tri-versity)'와 '국제교사자격증 (International Teacher's License: ITL)' 등 4가지이다.

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FRU는 교수들이 각자 자신이 전공하는 연구 주제에 추가해서 인천대에서 선정한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해 융합연구를 진행하도록 권장하는 제도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교수들에게 연구주제에 관계없이 우수한 학술논문을 내도록 격려하는 '종합적 연구중심대학 (Comprehensive Research University: CRU)'과 달리, 인천대는 11개 대학 64개 학과 교수 500명 전원을 대상으로 '바이오,' '통일후 통합,' '일대일로전략과 중국화교,'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에너지'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때 연구 자금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대는 5개의 초점을 가진 FRU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그 결과 세계 일등대학이 아니라(not the best university) 세계 유일의 대학이 되고자 한다(but the only university).

교육에서는 매트릭스 칼리지라는 개념을 개발했다. 인천대의 매트릭스 칼리지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X축은 이론 중심의 64개 기존 전공을 포함하고, Y축은 28개사, 7개 NGO, 20개 단체가 개발한 산업 현장 중심의 55개 주제를 포함하고, Z축은 모든 선택 과목을 포함한다. 재학 중에 현장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입학 당시 이미 선택한 X축 전공에 추가해서 Y축 주제에서 1개를 선택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매트릭스 칼리지는 “대학속 기업”이다.

사회공헌에서는 시민들이 평생 세 차례 대학에 와서 정규 학위 과정에서 학위를 이수하는 트라이버시티(Tri-versity)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이제 대학은 20대 초반 젊은이 외에, 40대를 위한 재취업 및 창업 교육, 60대를 위한 제3의 인생 준비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인천대는 100만명이 넘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제공하는 ITL이라는 자격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ITL을 가진 젊은이들은 전세계 200개가

넘는 개발도상국들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초중고 교사 역할을 수행한다.

조 총장은 인천대를 '창업인큐베이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국립대 중 지역주민 창업 촉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인천대는 교직원이 대학문화의 진정한 원동력이라는 전제 하에 학생과 교수진 창업에 앞서 직원 창업을 장려했다. 조 총장은 봄과 가을 학기 모두 '창조적 창업(Creative Start-up)'이라는 학부 과목을 직접 가르친다. 2018년 인천대 학생 39명이 창업을 했으며, 이는 전국 국립대 중 2위인 서울대 학생 창업 16명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숫자이다.

조 총장은 새롭고 혁신적인 세계 대학 랭킹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QS, THE 등 기존의 순위 체계는 학술연구논문 수와 피인용지수를 강조하는 순수학문 중심대학, 그리고 졸업생의 취업률과 연봉 수준을 평가하는 기존 대학을 우선시한다. 반면 WURI (World's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라는 이름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모델은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Real Impact)을 미치는 산업화 연구, 창업, 그리고 인성과 현장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에 대한 기준을 평가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가치를 반영한다. 동시에 다양한 비전과 임무를 가진 대학들이 여러 가지 평가기준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과보다는 원인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이를 위해 각 대학이 개발해서 응용하고 있는 혁신 모델을 평가한다. WURI는 2019년 7월 5일 인천대가 창립 40주년 행사의 하나로 개최하는 '제2회 한자대학동맹 컨퍼런스(The 2nd Conference of Hanseatic League of Universities)'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조 총장은 2016년부터 대한민국 대검찰청 검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7년에는 경기도와 인천시 32개 대학으로 구성된 대학총장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2018년부터는 5년마다 360개 국내 대학을 인증하는 책임을 교육부로부터 부여 받은 한국대학평가원 위원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시에 프로축구리그 이사, 자연환경국민신탁 이사장, 핀란드 명예총영사, 국가브랜드진흥원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조 총장은 1978년부터 2014년까지 36년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략, 국제경영, 지속가능경영, 경영디자인, 창의성 과목을 맡아서

가르쳤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중국 베이징에 있는 미국형 경영대학인 청쿵경영대학원(CKGSB) 전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조 총장은 1976년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Harvard Business School)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보스턴 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과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 시 걸프오일 코퍼레이션 (Gulf Oil Corporation)에서 2년간 근무한 뒤 1978년 귀국했다. 그 후 하버드 경영대학원, 미시간대 (University of Michigan), 보스턴대 (Boston University), 듀크대 (Duke University), 프랑스 INSEAD, 핀란드 헬싱키 경제대학원(현 알토대학: Aalto University), 호주 시드니대 (University of Sydney), 일본 도쿄대 (東京大學), 히토쓰바시대 (一橋大學), 중국 북경대학 (北京大學), 저장대학 (浙江大學), 난카이대학 (南开大學)에서 초빙교수를 지냈다.

조 총장은 주요 학술지에 115개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그가 집필했거나 공동 집필한 저서 68권 중에는 영문 17권, 중문 5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또한 3권의 소설을 썼다. 그가 마지막으로 펴낸 책의 제목은 ‘4FACT: 패러다임을 바꾸는 네 가지 창조적 전략’이다. 이 책에서 그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창조 과정만 알면 창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창조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2007년 한국 정부는 그에게 황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2004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2000년에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산업포장을 받았다. 매일경제신문 이코노미스트상,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유경제출판문화상, 한국경영학회 올해의 경제/경영학상 등은 그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2015년 핀란드 대통령은 그에게 ‘핀란드 백장미 훈장 일등 작위 기사 (The Knight, First Class of the Order of the White Rose of Finland)’를 수여했다.

최근 기업 임원과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그를 ‘한국 경영 구루 1위’로 꼽았다.

조 총장은 2007년 인제대학교, 2010년 핀란드 알토대학 (Aalto University)에서 각각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